

## 朝鮮時代 王族冠帽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李 民 周

目	次
I. 序 論	2. 遠遊冠
II. 우리나라 冠帽의 發達과 變遷	3. 翼善冠
1. 三國時代	IV. 朝鮮時代 冠帽에 關한 分析
2. 統一新羅時代	1. 身分別 構造의 分析
3. 高麗時代	2. 時代別 構造의 分析
4. 朝鮮時代	V. 結 論
III. 朝鮮時代의 冠帽制度	參考文獻
1. 冕旒冠	

## I. 序 論

冠帽은 단순히 머리를 보호하는 데만 그 着用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冠帽을 裝飾함으로써 아름다운 外觀을 갖고 官모의 體裁를 갖추므로써 威儀를 지키며 官모의 制度를 정하여 階級的 標信으로 삼아 身分을 구분하려는 데도 그 目的이 있다.

本 論文의 研究目的은 첫째로 우리 고유의 官모 制度가 언제부터 變貌되었으며 朝鮮時代に 와서 어떻게 整齊·變貌되었는가를 알아보고

둘째, 朝鮮時代 冠帽중 王族인 王·王世子·王世孫의 冠帽制度를 身分別·時代別로 形態를 체계화 시킴으로써 그 特徵을 자세히 考察하였으며

셋째, 時代別 冠帽의 形態를 체계화 시키기 위하여 그 制度를 圖式化시켜 一目瞭然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研究方法은 朝鮮時代 王·王世子·王世孫의 冠帽에 대해서 肖像畫와 몇 개의 실물과 더불어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方法을 取하였다.

研究範圍는 우리나라의 冠帽 중 특히 王·王世子·王世孫의 官모의 形態, 材料, 色相等 그 特徵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였다.

## II. 우리나라 冠帽의 發達과 變遷

## 1. 三國時代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上代最初의 官모형태는 幘과 折風이다.

幘은 頭巾의 일종으로 頭髮 또는 着髮을 덮어 씌우기 위한 간단한 頭巾狀의 冠帽이다.

折風은 無後幘과 같이 고구려 獨自의 官모로서 弁과 같다고 한 기사가 古記錄에 보인다.

특히 이 折風은 鳥羽를 加飾하여 鳥羽冠의 기원이 되었다. 이를 折風과 鳥羽冠의 기본형태에서 재료와 형태를 변화시켜 발달된 것으로는 우리의 찬란한 金冠을 들 수 있다.”

## 2. 統一新羅時代

고유의 冠帽를 지니고 있었던 삼국시대는 중기와 말기를 거쳐 中國의 衣冠制度를 받았거니와 統一新羅 이후로는 더욱 唐色이 농후한 服飾으로 변화하여 갔다. 法興王時에 이미 中國의 服飾에 눈뜨기 시작

하여 眞德王代에 中國衣冠을 채택하고 太宗武烈王 初에 中國의 「衣冠牙笏」을 始服하였다 한다.<sup>2)</sup>

그리하여 이때부터 우리의 고유한 관모 대신에 中國의 幘頭를 널리 착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3. 高麗時代

고려는 初에 文武百官의 公服制度를 新羅舊制를 繼承하였다 하는데 그 源流는 唐制에 두고 있다.<sup>3)</sup> 고려왕조에서는 여러차례 衣冠制度를 정돈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은 元의 服飾制度로 바꾼 것이다. 王·王妃·群臣에 이르기까지 衣冠과 服飾이 胡風으로 일신되었던 적도 있었다.<sup>4)</sup> 이같은 服飾의 변화에 따라 冠帽의 制度도 변천하여 갔다. 고려의 冠帽는 幘頭가 시종 그 主流를 이루었고 高麗王의 服飾은 高麗圖經 卷7 冠服條에 「高麗王常服 烏紗高帽 窄袖相袍 紫羅勒巾 間繡金碧 其會國官士民則加幘頭束帶 祭則冕圭 唯中朝人使至 則紫羅公服 象笏玉帶… 略… 平居燕息之時 則白巾白紵袍 與民庶無別也」라고 되어 있다.

그 후 明이 들어서자 恭愍王에게 冕服이 賜與되고 이로부터 衣冠文物이 달라진다.<sup>5)</sup>

### 4. 朝鮮時代

高麗末 李成桂의 威化島回軍 이후 王位에 올라 나라를 開國하니 고려왕조와 조선왕조의 교체는 다만 왕조의 革命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社會體制와 그 構成에 있어 고려시대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고 그 文化도 고려사회가 나아가던 方向으로의 進一步였다.

朝鮮王朝는 500年の 歷史的 背景下에서 많은 발전과 변천을 겪었으며 특히 王族의 衣冠과 服飾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王·王世子·王世孫의 冠帽에 있어 中國과의 賜與關係는 생략하고 변천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 Ⅲ. 朝鮮時代의 冠帽制度

中國으로 부터 영향을 받은 服飾 중에서 특히, 王, 王世子, 王世孫의 冠帽는 그 制度상에서 朝鮮時代에 確立을 보게 되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여러가

지의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朝鮮時代 王, 王世子, 王世孫의 冠帽 制度에 대해서 자세히 考察해보도록 하겠다.

### 1. 冕旒冠

冕旒冠에 衣服을 冕服이라 하는데 이는 王의 正朝·冬至·朝會·受冊·納妃등에 着用하던 祭服 및 大禮服으로 君王의 標信으로 삼던 것이다.

#### (1) 王의 冕旒冠

冕旒冠은 典型的인 漢民族의 冠帽이다. 이 冕冠은 소위 大禮의 祭冠으로서 悠久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禮記王制에는 「夏后收祭 殷人鬯祭 周人冕祭」라 쓰여있고 論語와 西經 太甲에는

「禹致美黻冕」

「伊尹以冕服奉鬯王歸亳」

등 早期의 문헌에 이미 그 이름이 나와 있다. 즉 夏代에는 收라고 하였고 殷代에서는 鬯라고 하였고 周에서는 冕이라고 하였다고 漢民族은 믿고 있던 것이다.<sup>6)</sup>

이와같이 冕旒冠의 起源을 더욱 詳考하면 後漢의 蔡邕는

「冕冠 周曰爵弁 殷曰鬯 夏曰收」

라고 하여 冕旒冠의 변천을 고증하였다.

여기에서 그 각각의 형태를 보면, 周의 爵弁은 赤三十升의 漆布로 만들었으며 넓이가 24.1cm 길이가 약 36cm이다. 色은 黑과 赤이고 鳩사 爵頭(雀頭)의 色과 같으며 前小後大의 형태다. 殷의 鬯도 역시 黑色과 微白色이며 前大後小의 형태다. 夏의 收 역시 純黑色과 赤色이 혼용되었고 前小後大의 형태이다.

續漢書에 보면 爵頭色과 같다고 한 이외에도 「如爵形」이라 하여 爵形과 같다는 데서 온 名稱이라고도 보고 있다.

冕旒冠에 대한 觀念的인 作用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中華의 藩屏으로 자처하는 가운데 中國에 대한 事大와 標信으로서 이를 崇仰하여 왔던 것이다.

그 당시 社會가 요구하는 한 장르로서 生成發展한 服飾形態에 儒者와 이의 追從者들은 神話에 가까운 一種의 철학적인 가치개념을 부여하였다.<sup>7)</sup>

우리나라에 傳來된 最初의 것으로는 高麗 毅宗朝

詳定古今禮에서 그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으니 九旒에 每旒 十二玉이었으니 그 玉에 赤·白·蒼의 3色이 있어 이를 서로 엇바꾸어 엮고 있다.

그 다음 恭愍王朝 明賜與 冕旒冠은 九旒이고 靑珠를 달고 있었는데 玉이 몇개 인지는 明示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明의 洪武26年制의 皇太子 親王이 九旒九玉이었으니 우리나라 國王은 明親王禮에 따랐던 것이니 만큼 一旒에 十二玉이 아닌 靑珠 九玉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朝鮮王朝에 들어와서도 冕旒冠은 明親王禮를 따랐을 것이므로 이와 同一한 것이었다고 보며 五采玉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즉 世宗 25年 12月 「賜與冕冠」條에 보면 5色の 珊瑚玉 旒珠와 膽珠를 합해서 166顆內에 紅36顆, 白36顆, 蒼36顆, 黃36顆, 黑18顆 靑·白의 膽珠 4顆가 들어 있다. 黑18顆는 前·後 9顆 즉 前後 9旒를 말하는 것이니 一旒를 「紅·白·蒼·黃·紅·白·蒼·黃·黑」式으로 엮은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sup>8)</sup> 다음 冕의 左右 양옆에는 各 耳邊에 黹纁을 垂下하였다.

黹纁에 대하여서는 禮記 子張 問入官編에 「黹纁은 귀를 막아 소위 聰하는 것이다」 하였고 또 前漢書 東方朔傳에

「冕은 앞에 旒를 하여 눈밝음을 가리고 黹纁으로 귀를 채워 귀밝음을 막는다」고 있다.

瑱은 充耳 또는 塞耳라고도 하며 纁과 瑱은 別個의 것이며 다만 장식물로서 役割이 同一하다는데 불과하다.

또 冕에는 組纁이 부속되어 있어 紘으로서 턱밑에 매지 않고 가슴옆에 늘어뜨려 장식한다.

또 부속물로서 笄가 있다. 이는 冕의 武의 위쪽에 꽂게 되어 있어 冕을 두발에 安着시키는 장치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를 참고로 高麗 毅宗朝詳定古今禮에 기재된 바와 明의 永樂禮制에 의한 親王禮 및 朝鮮王朝五禮儀에 의하여 우리 國王의 冕旒冠에 대하여 알아본다.

冕旒冠의 平天板의 겉쪽은 검은 색이고 안쪽은 붉은 색이며 넓이 8寸이고 길이는 1尺6寸이며 앞쪽은 둥글고 뒤쪽은 方型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앞쪽 旒珠의 길이는 8寸5分으로서 뒤쪽보

다 앞쪽이 1寸정도 짧다. 여기에서는 旒珠의 길이가 앞길이 4寸 뒷길이 3寸이 아니고 다시 길어진 것을 본다.

平天板의 前後에는 5采의 면류줄이 각각 9旒이고 한 줄의 旒는 9玉 포함 162玉이며 이 玉顆는 紅·白·蒼·黃·黑의 5色이어서 「紅·白·蒼·黃·紅·白·蒼·黃·黑」의 順으로 서로 엇바꾸어 꿰서 짜고 있다.

여기에 가슴 앞에 늘어뜨리는 朱色の 紘(纁)과 어깨에 늘어뜨리는 玄色線條의 紘이 있고 白玉으로 된 瑱(充耳)을 귀결까지 늘어뜨렸으며 또한 靑玉을 사용한 纁을 귀결까지 늘어뜨리고 있다. 玉衡으로서 冠을 結維하고 金簪導를 꽂았다.

「國朝五禮儀序例」服玩圖說에서는 常制의 半으로 만들게 한 것을 1/5로 간소화 하였다. 즉 覆版은 體와 같이 넓이 8寸 길이 1尺6寸으로 하고 前圓後方으로 하며 版의 겉은 昌緞으로 하고 안은 紅廣織으로 한다. 體의 높이는 앞 8寸 뒤 9寸 5分으로 하며 阜毛羅로 쓴다. 版 밑의 玉樑과 양 옆의 玉瑱은 함께 唐粉으로 칠하고 前後의 九旒는 五色 명주로 造成하는데 每旒 五采의 九玉을 꿰는다. 장식으로는 金錢지를 잘라 冕의 左右에 붙이고 紅絲로 끈을 한다. 小喪일 때는 8旒로 하며 每旒마다 三采의 玉을 꿰는데 朱·白·蒼이 되게 한다. 玉樑 玉瑱은 녹분으로 그린다.<sup>9)</sup>

朝鮮王朝末에 이르러 高宗이 在位 34年에 國號를 大韓帝國이라 칭하고 皇帝位에 오르자 高宗皇帝는 中國皇帝와 같은 十二旒冕 十二章服을 착용하였는데 여기에서 먼저 永樂三年制皇帝 冕冠을 알아보고 이와 對照하여 光武 元년에 制定된 우리나라 皇帝 冕服의 冕冠을 살펴보기로 한다.

永樂禮制에서 보면 冠은 烏紗로 만들었다. 冕旒冠 위 싸개를 纁이라고 하였다. 桐板을 바탕으로 하여 무늬있는 비단을 입혔다. 그리하여 겉은 玄色이고 안은 朱色으로 앞은 둥글고 뒤는 모졌다. 周尺으로 넓이는 1尺2寸이고 길이는 2尺4寸이었다. 이것이 곧 平天版으로 前後에는 各 12旒가 있었고 每旒는 5采로 짜고 旒마다 赤·白·靑·黃·黑의 5采인 玉珠를 서로 엇바꾸어 꿰었다. 또한 玉衡으로서 冠을 結維하고 玉簪을 꽂았는데 玉簪에는 끈을 꿰어 그 끈을 冠 下邊인 武에 달린 纁에 합쳤다. 모두 金飾을 하였다. 그리고 纁左右에는 黃玉을

사용하여靛纒充耳를下垂하였고紉·白玉瑱·朱紘을 드리웠다. 그런데, 高宗皇帝가 착용하던 冕冠은 그 모양이 圓匡의 烏紗帽로서 冠위에 覆板 즉 平天板이 있어 周尺으로 길이는 2尺 4寸 넓이는 2尺 2寸으로 明皇帝 冕冠보다 넓이에 있어 1尺이나 넓다.

또 前後各 12旒에는 黃·赤·青·白·黑·紅·綠의 7采玉珠를 順序대로 꿰고 있어 明皇帝의 것보다 紅·綠의 2采玉이 더 있으며 여기에 玉珩·玉簪導가 있고 朱纒에 黃玉을 사용한 靛纒아닌 靑玉을 사용한 靑纒充耳를 늘어뜨렸다.

다음은 朝鮮時代 儀軌圖에 나타난 冕旒冠을 보면 冕板이 廣 8寸 長 1尺6寸이며 앞이 둥글고 뒤가 모나고 겉은 玄色繪으로 안은 纁色繪으로 쓴다. 앞 높이는 8寸5分이고 뒤는 9寸5분에 金飾한 九旒에 매류마다 九玉을 五采로 꿰는데 朱·白·蒼·黃·黑이며 旒長은 9寸으로 前後 18旒이다.

### (2) 王世子の 冕旒冠

王世子 冕旒冠은 明世子冠服에 있어서의 永樂三年制 八旒冕冠에 준한 것이었으며 明에서 朝服으로 六梁冠을 사여한 것이 世宗 10年 11月이고 祭服으로 世宗 32년에 賜與했다.<sup>11)</sup>

또한 國朝五禮儀에 規定된 바로 冕版의 넓이는 8寸 길이는 1尺6寸으로서 前圓後方하였으며 겉은 玄色繪으로 덮고 안은 纁色繪으로 썼다. 冠身의 앞 높이는 8寸 5分 뒤 높이는 9寸 5分으로 金飾하였다.

冕旒는 8旒로서 전후 16旒이며 旒마다에는 8玉이 있어 朱·白·蒼의 차례로 3采玉을 꿰었는데 旒의 길이는 9寸이었다.

金簪을 꽂았다.

冕板 옆에는 玄色 紉이 붙어 있었고 이에 玉瑱을 늘어뜨려 充耳로 삼았다.

또한 紫組 2줄을 가지고 양쪽 武에 附着시키고 이를 턱 밑에서 매고는 나머지는 늘어뜨렸으며 朱組 1줄을 笄 왼쪽에 얹고 턱 밑을 돌려 오른쪽 위로 올려서 笄에 附着시켜 곱쳐 매고 나머지는 늘어뜨려 修飾으로 삼았다.

國末 高宗皇帝 때의 世子 즉 皇太子의 冕冠은 明皇太子制를 따른 것이니 곧 그것은 明親王制와 같은 것으로 高宗이 皇帝位에 오르기 전 朝鮮王朝 歷代王의 九旒冕이기도 하다.

또한 王世子の 嘉禮時의 六禮服飾을 살펴보면 納采儀에 冕服을 입었으며 告期儀에는 冕服을 입었다. 王世子の 冕旒冠은 그 형태가 九旒冕과 같으나 王世子는 一旒가 적은 八旒冕冠이다.

### (3) 王世孫 冕旒冠

「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 보면 王世孫의 冕冠의 制는 王世子와 같으나 七旒이고 每旒마다 七玉을 꿰는데 3采玉으로 먼저 朱·白·蒼으로 旒가 적은 것외에는 差異가 없다.<sup>12)</sup>

## 2. 遠遊冠

遠遊冠에 絳紗袍를 「受陪臣朝見之服」이라 하여 朔望·朝降·詔降·進表·朝見에 착용하였으며 이것은 곧 國王의 朝服에 該當하는 것이다.

### (1) 王의 遠遊冠

李太祖의 遠遊冠의 형태는 「大明集禮」에 의하면 遠遊冠上에 蟬9首를 붙이고 앞면 세 곳은 칠보로 장식하고 양쪽 冠纒에 組纒이 달렸으며 犀角의 簪導를 꽂았다고 한다.

「國朝五禮儀」에 의하면 遠遊冠은 黑毛羅로 쓴 위에 9梁 구슬을 每梁 18玉씩 黃·蒼·白·朱·黑의 순서로 하고 冠 양면에는 朱纒으로 끈을 매고 冠에는 金簪을 꽂는다고 하였다.

李朝末 高宗皇帝는 光武 2년에 禮服을 始定하였는데 冠服으로 通天冠을 착용하였다.

嘉禮時 遠遊冠은 玄色の 羅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9梁의 구슬을 每梁마다 18玉을 앞뒤에 9玉씩 꿰는데 黃·蒼·白·朱·黑色의 五采를 순서대로 꿰었다.

冠의 양편에는 朱纒으로 끈을 꿰매고 金簪을 꽂는다.

「增補文獻備考」에 보면 遠遊冠은 左右에 玉을 꿰 梁이 螺文形을 이루고 前面에 玉裝飾을 하였다.<sup>13)</sup>

### (2) 王世子 遠遊冠

「續五禮儀補」에 의하면 冠은 毛羅로 싸고 八梁의 每梁 前後에는 3采의 구슬 8玉이 配列되어 있고 朱組의 紉를 맨다.

嘉禮時 納徵儀에 遠遊冠을 착용한다.<sup>14)</sup>

### (3) 王世孫 遠遊冠

王世孫의 遠遊冠은 7梁으로 每梁 3采玉을 꿰었다.

### 3. 翼善冠

翼善冠에 袞龍袍는 王의 常服이다.

#### (1) 王

朝鮮太祖의 翼善冠은 帽頂이 낮고 뿔과 같은 것에 비해 英祖의 翼善冠은 帽頂이 높고 커졌다. 이것이 國末에 이르면 帽頂이 중간크기의 것으로 되었다.

이 翼善冠의 형태를 보면 平天板의 감과 같은 검은 紗 곧 香阜絨紗로 덮고 있었으며 冠뒤에는 兩角이 있었고 이것이 위로 향하여 솟아 있어 이를 折角向上이라 하였다.

昌德宮所藏 翼善冠은 한 가운데의 帽위에 두가닥의 紫色 끈을 두었다. 帽의 밑둘레는 약 55cm인데 帽의 위쪽은 약 35.5cm이다.

뒤에 있는 두개의 羽翼 높이는 약 19cm나 되며 아래의 윗부분 넓이가 약 5cm나 된다. 그러나 밑은 1cm 안팎이고 두 羽翼을 세울 수 있도록 鐵絲로 장치를 하였다. 紫色으로 高尚하다.

이를 國朝續五禮儀補序例 殿下親事服圖說에서의 翼善冠은 보면, 그것을 毛羅로 썼는데 兩大角뒤에는 兩小角을 貼付하여 向上시킨 것이었으며 國末 高宗皇帝 光武 元年 始定常服條에서는 烏紗로 썼는데 頂이 앞은 낮고 뒤는 높았고 兩角이 折上하여 약간 頂外로 나왔다.<sup>15)</sup>

世宗大學校博物館에 소장된 翼善冠의 형태는 보라색 緋緞으로 걸을 싼 정교한 것으로 높이가 18cm 지름이 약 17cm 정도이다. 또한 折上角은 위에서 꽃게 되어 있고 帽의 가운데는 썩색빛이 나는 회색의 명주실로 꼬아 대었다.

#### (2) 王世子 翼善冠

王世子の 常服에 관한 明에서 請賜관계는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明 禮制를 좇아 制度化하고 이를 襲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서 國朝續五禮儀補序例 王世子 書筵服制度에서의 翼善冠은 毛羅로 쓰고 兩大角뒤에 兩小角을 貼付하여 向上시켰다.

또한 嘉禮時 冊嬪儀에 입고 同牢宴이 끝난 후에 翼善冠에 袞龍袍로 갈아 입었다.

#### (3) 王世孫의 翼善冠

王世孫의 翼善冠은 毛羅로 되고 兩角이 折上한 형태의 冠帽로서 王世子の 것과 같다.<sup>15)</sup>

## IV. 朝鮮時代 冠帽에 관한 分析

### 1. 身分別 構造의 分析

#### (1) 冕旒冠

世宗 25年 王冕冠의 構造를 보면 平天板의 廣은 8寸 長 1尺6寸의 前圓後方으로 旒珠의 앞쪽 길이는 8寸5分, 뒤쪽길이는 9寸5分으로 5采의 冕旒줄 9줄이 있고 紅·白·蒼·黃·黑의 순으로 구성되고 平天板의 絢은 玄色이고 안은 纁色이며 冕左右 各 耳邊에 黹纁이 있고 組纁으로 턱 밑에 매지 않고 가슴옆에 늘어뜨린 장식이다.

白玉으로된 瑱(充耳)과 靑玉을 사용한 纁을 귀걸이까지 늘어뜨리고 있다.

玉衡으로서 冠을 結維하고 金簪導를 꽂았다.

계는 冕을 頭髮에 안착시키는 장치로 冕의 武 위쪽에 꽂는다.

王世子の 冕冠은 8旒冠으로 絢은 玄色 纁으로 안은 纁色 纁으로 하고 平天板의 크기와 冕旒의 크기는 같다.

8旒冠은 每旒 3采玉으로서 朱·白·蒼의 8玉을 꿰고 冕板의 옆에는 玄色紉이 붙고 이에 玉瑱을 늘어뜨려 充耳로 삼는다.

王世孫의 冠帽는 王世子와 같으나 旒數에 있어 7旒이고 3采玉으로서 朱·白·蒼의 순서로 每旒마다 7玉씩 맨다. <표 1>

다음은 문헌에 나타난 冕旒冠의 構造를 알아본다. <표 2>

#### (2) 遠遊冠

陪臣朝賀之服으로서 遠遊冠은 王의 경우 黑毛羅로 싼 위에 九梁의 구슬을 每梁 18玉씩 9旒에 배열하는데 黃·蒼·白·朱·黑의 順序로 하고 冠 兩便에는 朱纁으로 끈을 매고 冠에는 金簪을 꽂는다.

李朝末 高宗皇帝는 烏紗帽와 비슷한 것으로 前後 12旒에 每旒 5采 구슬이 12珠 附着되고 양편에 紅組纁이 있고 冠에 玉簪을 꽂았다.

王世子の 遠遊冠은 毛羅로 싼 8梁의 旒가 있는 每梁 前後에는 3采의 구슬 8玉이 배열되고 朱組의 紉를 맨다.

王世孫의 경우는 七梁의 旒에 每梁 前後에는 각 3采의 구슬 8玉이 배열되어 있다. <표 3>

#### (3) 翼善冠

翼善冠은 처음 검은 紗로 만들어 졌으며 冠 뒤

〈丑1〉(身分別 冕旒冠의 制度)

身分		王	王世子	王世孫
平天板	(크기)黃	8寸	8寸	8寸
	長	1尺6寸	1尺6寸	1尺6寸
	(재료)表裏	玄 紗 朱 紗	玄 繪 纁 繪	玄 繪 纁 繪
冕旒	(크기)前後	8寸5分 9寸5分	8寸5分 9寸5分	8寸5分 9寸5分
	(數)	9旒	8旒	7旒
	(玉)순서	5采玉 紅·白·蒼·黃·黑	3采玉 朱·白·蒼	3采玉 朱·白·蒼
주황		青玉		
瑱		白玉瑱	玉瑱	玉瑱
簪		金簪導		
紉		양어깨로 늘어뜨림	玄色の 심	玄色の 심
組纓		가슴옆에 늘어뜨린 장식	2줄을 턱밑에 매고 늘어뜨림	턱밑에 매고 늘어뜨림
(紉)		맷기도 하고 가슴앞에서 늘어뜨림		
特徵		前圓後方	前圓後方	前圓後方
笄		冕의 武위쪽에 꽂는장치	계有	계有

〈丑2〉(文獻別 冕旒冠의 制度)

文獻		永樂體制	大明會典	國 朝 五體儀序例	朝鮮時代世宗	考宗皇帝	王世子	王世孫
平天板	廣	1尺2寸	1尺2寸	8寸	8寸	2尺2寸	8寸	8寸
	長	2尺4寸	2尺4寸	1尺6寸	1尺6寸	2尺4寸	1尺6寸	1尺6寸
	材料	紗	烏紗	繪	紗	紗	繪	繪
	色相	(겉)玄 (안)赤	玄赤	玄·纁	玄·玄	玄赤	玄纁	玄纁
	旒數	12旒	12旒	9旒	9旒	12旒	8旒	7旒
	玉數	5采玉	5采玉	5采玉(朱·白 蒼·黃·黑)	5采玉	7采玉	3采玉	3采玉
	前高 後高			8寸5分 9寸5分			8寸 9寸5分	
	材料			阜毛羅				
	形態	前圖後方						
	充耳		黹纁充耳 (黃玉使用)			黹纁充耳 (青玉使用)		
	玉의순서	赤·白·蒼·黃·黑	朱·白·蒼·黃·黑			黃赤青白 黑紅綠		

兩角이 위로 向하여 솟아있어 折角向上하였으며  
帽위에 2가닥 紫色끈이 있고 뒷부분에는 羽翼이

있으며 羽翼을 세울 수 있도록 철사로 장치했다.  
高宗皇帝의 翼善冠은 烏紗로 싸고 頂이 앞은

〈표3〉 (身分과 文獻別 遠遊冠의 制度)

身分 文獻 制度	高麗恭 愍王	大明集體	國朝五禮儀	高宗皇帝	王世子	王世孫
梁數	7梁	9梁	9梁	12梁	8梁	7梁
蟬數	7着	9着				
玉數			5采玉 (黃蒼白朱黑)	5采玉12珠	3采玉8玉	3采玉7玉
簪	犀簪導	犀簪導	金簪導	玉簪導		
材料				烏紗	毛羅	
朱纓			양편에 끈을맨			

〈표4〉 (身分別 翼善冠의 制度)

翼善冠 制度	國朝五禮儀補序例	高宗皇帝	王世子	王世孫
材料	毛羅	烏紗	毛羅	毛羅
形態	兩大角뒤에 兩小角을 첨부하여 向上	兩角이 折上하여 頂外로 나왔다	兩大角뒤에 兩小角첨부 하여 向上	兩大角뒤에 兩小角을 첨부하여 向上
色相	玄色	紫色	玄色	玄色

낮고 뒤는 높았다. 또한 兩角이 折上하여 頂外로 나왔다. 王世子の 翼善冠은 毛羅로 싸고 兩大角뒤에 兩小角을 貼付하여 向上시켰다.

王世孫은 王世子の 것과 같다.〈표 4〉

2. 時代別 構造의 分析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考察한 冠帽의 형태를 中心으로 그 制度상에서 부분별로 분류하여 형태를 圖式化함으로서 冠帽制度의 時代別 構造를 간단히 고찰할 수 있다.

(1) 冕旒冠

周의 爵弁은 赤三十升의 漆布로서 廣24 長36의 黑과 赤色으로 雀頭의 色이 同一하며 그 형태는 前小後大했고 殷의 鬲은 黑과 微白色으로 前大後小했고 夏의 收는 純黑色과 赤色이 혼용된 前小後大한 형태이며 明制는 廣8寸 長2尺인 如爵形의 前小後大한 形이고 漢은 廣7寸 長1尺3寸의 前圓後方의 平天板에 앞 4寸 뒤 3寸의 垂旒를 달았다.

여기에 高麗 毅宗期에는 冕冠이 九旒이고 旒마다 12玉이 赤·白·蒼으로 꿰어있고 靑纁·靑紵·靑瑱을 늘어뜨렸다.

이것이 國朝五禮儀에서는 광의 존재가 없고 瑱에

달린 組와 纓이 있고 玉瑱에는 紫組 2줄이 兩傍에 달려있고 턱밑에 늘어뜨리며 朱條 1줄을 왼쪽의 계에 얹어 늘어뜨려 턱밑을 돌려 올려 오른쪽 계에 걸었다.

恭愍王은 九旒에 靑珠를 달고 旒마다 靑珠 九玉을 꿰었다.

國朝五禮儀序例에서는 常制의 1/2을 1/5로 간소화하고 材料는 覆板은 體와 같이 糊紙로 하고 版의 크기는 廣8寸 長1尺6寸의 前圓後方으로 하고 板의 재료를 곁은 昌緞으로 안은 紅廣織으로 했다. 體의 앞높이는 8寸 뒤높이는 9寸5分の 阜毛羅로 했다.

大明會典에서 보면 冕板의 廣1尺2寸 長2尺4寸에 12旒이고 每旒 5采玉珠의 12旒를 달고 玉簪導를 꿰고 朱纓을 늘어뜨렸다.

親王은 冕 5采玉珠 9旒를 달고 金簪導를 꿰는 다.









또한, 위에서 알아본 특징으로 鬲의 冕板은 부드러운 형태의 板으로 構成되어 있고 備冕式冠은 板과 帽가 연결된 형태이고 隋·唐의 冕冠에는 纒위로 길게 紘이 두리워 그것이 허리밑까지 온다. 顯宗國葬都監儀軌의 冕冠에는 瑱의 길이가

길고 正祖國葬都監儀軌의 冕冠은 紘아래 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표5,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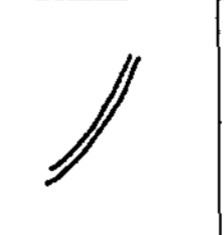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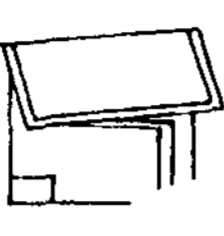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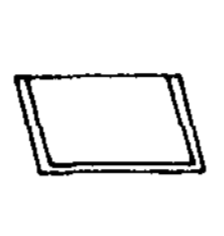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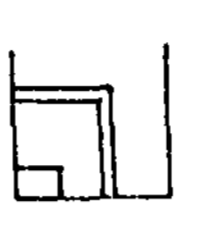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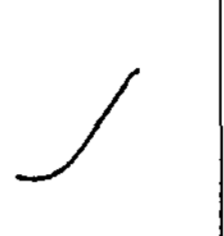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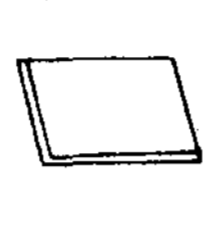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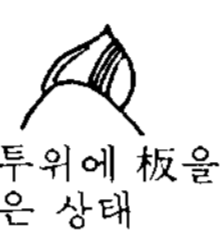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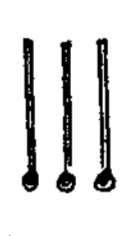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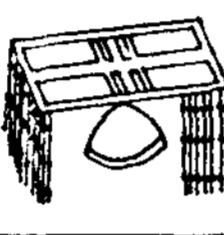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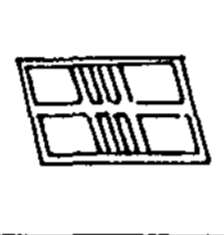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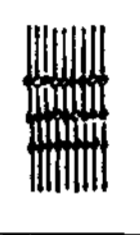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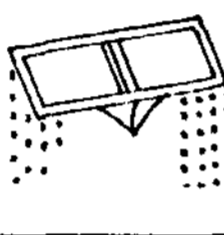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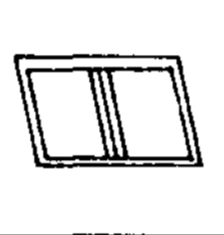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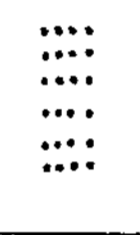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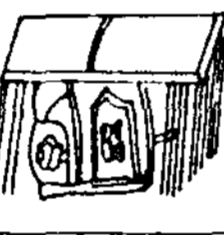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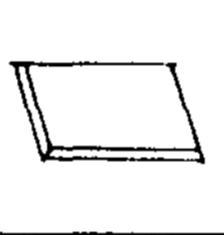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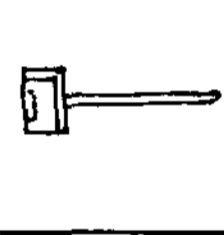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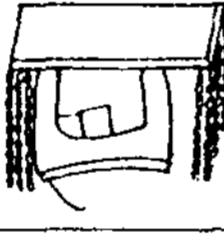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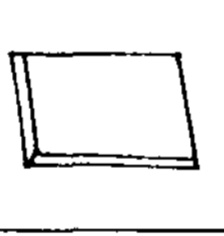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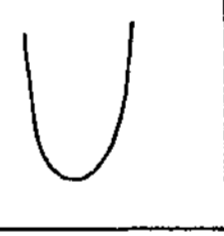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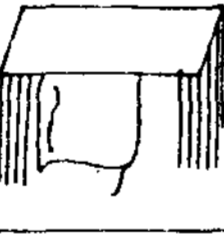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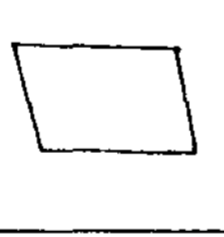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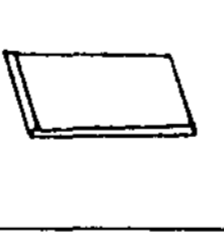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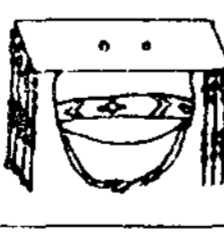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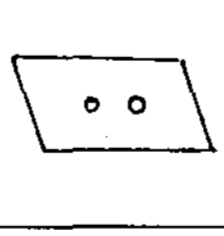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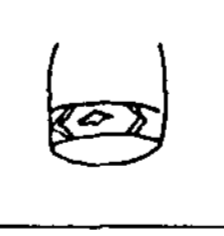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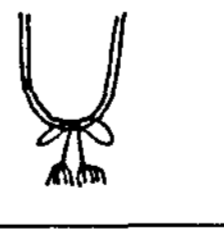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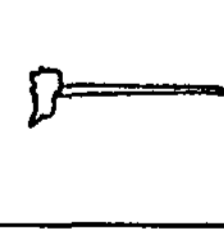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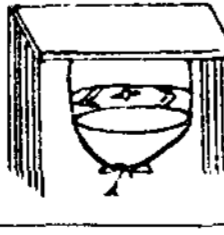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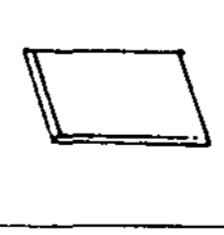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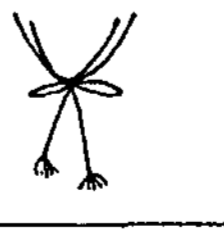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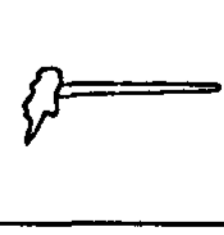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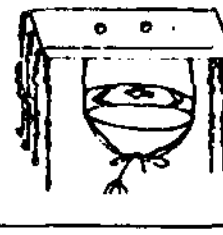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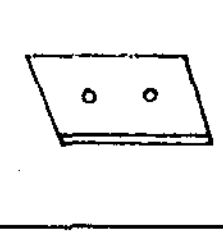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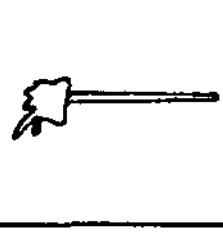
<표5> (時代別 冕旒冠의 形態)

	평천판	帽	紘	瑱	旒	玉	簪	
1. 罽	有	有	左右紘	無	無	無	無	* 부드러운형태의板
2. 爵弁	有	有	2줄의 紘	未詳	無	無	無	
3. 濟南無影山西漢彩會白戲桶冕式冠	有	有	紘	無	無	無	無	* 板과 帽가 연결된 형태
4. 朱魚有墓畫像冕冠	有	有	.	.	無	無	無	
5. 沂南漢墓畫像冕服	有	有			3旒	1玉		* 상투위에 관을 올려 놓은 것과 같은 모양
6. 司馬金龍墓屏風畫楚王冕服	有	有	無	.	9旒	3玉	.	
7. 集安高句麗畫仙人冕服	有	有	無	.	4旒	6玉	.	
8. 隋文帝冕冠	有	有		.	12旒	無	有	* 紘위로 길게 끈이 드리워 그것이 허리 밑까지
9. 唐敦煌冕冠	有	有		無	不明瞭	不明瞭	無	* 紘위로 길게 끈이 드리워 앞허리 밑까지 온다.
10. 彝崇義三禮圖冕冠	有	有			12旒	無		
11. 五代于闐王冕服圖	有					無		
12. 三才圖會 九章冕	有 冠위에 2개구멍	* 帽앞부분에 紋	左右紘	瑱	7旒	7玉	有	
13. 三才圖會 十二章冕	有	有	.	.	9旒	無	有	
14. 大韓禮典內十二章冕	有 冠위에 2개구멍	有	.	.	7旒	7玉	有	
15. 世宗實錄	有 玄朱	有	左右青紘	青瑱	前後9旒	9玉 紅白蒼黃黑	無	
16. 國朝五禮儀補	有 表 玄 裏 纁	有	.	.	前後9旒	7玉 朱白蒼黃黑	無	
17. 國朝喪禮儀補編	有 表	有	.	.	前後9旒	9玉	無	
18. 顯宗國葬都監儀軌	有	有	紘	瑱	4旒	9玉	無	* 瑱의 길이가 길다
19. 正祖國葬都監儀軌	有	有	.		5旒	9玉	.	* 紘아래 술이 없다

(그림 1) <冕旒冠의 時代別 形態>

	冕旒冠	板의 狀	帽	紘	旒	簪
1. 冕						
2. 爵弁						



		冕旒冠	板의 狀	帽	紘	旒	簪
3. 濟南戲桶 西漢彩冠 無影繪式 山百冠							
4. 像冕冠 朱魚墓畫							
5. 畫像冕冠 沂南漢墓				 상투위에 板을 엮은 상태			
6. 司風冕冠 馬畫楚王冠 金龍屏							
7. 麗冕冠 集安畫仙人 高句							
8. 臚文帝冕冠							
9. 唐帝王冕冠							
10. 禮圖冕冠 肅崇義三							
11. 王冕冠 五代于闐				* 불명료			
12. 九旒冕 三才圖會							
13. 二章冕冠 三才圖會							
14. 內冠 大韓禮典 十二章冕							

		冕旒冠	板의 狀	帽	紘	旒	簪
15. 所載冕冠 世宗實錄							
16. 補冕冠 國朝五儀							
17. 補冕冠 國朝襄禮							
18. 都冠 顯宗儀軌 監儀軌 國葬冕							
19. 都冠 正祖儀軌 監儀軌 國葬冕							

(2) 遠遊冠

唐의 遠遊冠은 3梁으로된 冠으로서 金璫과 蟬의 粧飾 9개가 부착되었고 머리에는 珠翠를 쓰며 黑介로 머리를 동이며 纓에는 翠綉를 달고 犀簪導를 사용했다.

단 皇帝는 通天冠을 사용하고 24梁이었다.

宋의 皇帝는 通天冠을 사용하고 24梁이며 蟬·12首를 부착했고 옥잠도를 사용했고 皇太子는 朝會時 18梁의 遠遊冠을 착용하고 犀簪導와 博山을 짜서 사용하였다.

고려 恭愍王朝에는 七梁에 金博山을 加하고 蟬 7首가 부착되고 위에는 珠翠가 달리고 犀簪導를

썼었다.

李太祖 4년에는 遠遊冠上에 蟬 9首를 부착하고 앞면 3곳에 칠보로 장식했으며 양쪽에 組纓을 달고 犀簪導를 썼었다.

國朝五禮儀에서는 九梁으로 黑毛羅로 싼 위에 每梁에 18顆 九梁은 黃·蒼·白·朱·黑순으로 달고 朱纓을 늘어뜨리고 金簪을 썼었다.<표6,그림2>

肅宗朝에는 9梁에 18玉의 遠遊冠을 착용했다.

(3) 翼善冠

國朝五禮儀補序例에서 翼善冠은 毛羅로 되어있고 兩大角뒤에 兩小角이 첨부되어 向上되었으며 高宗皇帝의 것은 烏紗로 싸고 頂이 앞은 낮고 뒤는

<표6> (時代別 遠遊冠 形態)

	冠	梁	蟬	纓	玉	簪
1. 宋人繪(女孝經圖) 遠遊冠	有	24梁	12首	有	3采玉	·
2. 國朝五禮儀遠遊冠	有	9梁	9首	有	·	金簪導
3. 國朝續五禮儀遠遊冠	有	8梁	·	有	8玉	·
4. 通天冠	有	12梁	·	有	·	·
5. 遠遊冠	有	9梁	·	有	·	·
6. 皮弁	有		·		·	有

(그림 2) <遠遊冠의 時代別 形態>

		遠遊冠	帽	梁	纓
1. 宋遠遊冠					
2. 遠遊冠 國朝五禮儀					
3. 遠遊冠 國朝續五儀					
4. 通天冠					
5. 遠遊冠					
6. 皮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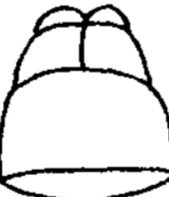


높았으며 兩角이 折上되어 頂外로 나왔다.  
形態의 특징을 보면 그 근본구조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朝鮮 英祖의 翼善冠을 보면 그 帽頂이  
높아졌고 羽翼의 크기도 커져 安定感을 준다.  
<표7, 그림3>

<표7> (時代別 翼善冠 形態)

翼善冠	帽	羽翼
1. 明太祖 翼善冠		
2. 朝鮮太祖 翼善冠		
3. 明成祖		
4. 明宣宗		
5. 明世宗		羽翼이 각지고 조그마하다.
6. 朝鮮英祖	朝鮮에서만 보이는 현상으로 帽頂이 높다.	羽翼이 커지고 넓어졌다.
7. 昌德宮所藏		
8. 高宗皇帝		

(그림 3)〈翼善冠의 時代別 形態〉

		翼善冠	帽	羽翼
1. 翼善冠 明太祖				
2. 翼善冠 朝鮮太祖				
3. 翼善冠 明成祖				
4. 翼善冠 明宣宗				
5. 翼善冠 明世宗				
6. 翼善冠 朝鮮英祖			 朝鮮에서만 보이는 현상으로 * 帽頂이 높아졌다.	 * 羽翼이 커지고 넓어졌다.
7. 藏翼善冠 昌德宮所				
8. 翼善冠 皇帝高宗				

V. 結 論

이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고유한 형태의 冠帽 制度가 中國 唐制의 영향을 받으면서 統一新羅時代 부터 변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對外關係에 있어 中國의 中華에 대해 小華임을 자처하면서 明의 制度를 받아 冠帽의 형태·色相·材料등을 制度化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冠帽制度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制度化하기는 하였으나 國末에 이르러서는 그 制度上에서 변화를 갖음으로써 民族的인 意識이 저변에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冠帽의 形態를 時代別로 나누어 圖式化하여 비교

시킴으로써 그 形態上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었다.

冕旒冠은 文獻을 통하여 圖式化해 본 결과 帽의 形이 점차 정제화된 것을 볼 수 있고 紘의 경우 實用性보다는 裝飾化된 것을 볼 수 있다.

遠遊冠은 冠에 많은 장식을 하여 權勢를 나타내 었다.

翼善冠은 그 形態의 基本은 時代가 변하여도 차이가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朝鮮 太祖와 英祖 그리고 高宗의 翼善冠을 비교해 볼 때 英祖의 翼善冠의 帽頂이 넓어지고 커졌으며 羽翼의 크기도 커져 안정감을 주고 있다.

以上에서 綜合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 冠帽制度가

中國의 영향을 받았으나 朝鮮英祖의 翼善冠이나 高宗皇帝의 관모를 볼 때 우리의 獨自性이 보이고 있어 朝鮮時代 冠帽制度가 中國의 것을 그대로 습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大出版部 1980 pp. 81~82.
2.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晉齋 1971 pp.23~25
3. 高麗史 卷72 輿服條 「高麗太祖開國事 多初創 因用羅舊 光宗始定 百官公服於 是尊卑上下等威 云云」
4. 高麗史 卷72 輿服條 「太祖高皇帝 賜恭愍王冕服 王妃群臣亦皆有賜 自是衣冠文物 煥然復新 彬彬 乎古矣」
5. 金東旭 「李朝前期 服飾研究」 韓國研究院 196 3 p.29.
6. 金東旭 「李朝前期 服飾研究」 韓國研究院 196 3. p.202
7. 柳喜卿 「冕服에 관한 研究」 梨大論叢22輯 19 73 p.243.
8. 世宗 二十六年 3月 卷百三 三十~三十一張 參照
9. 金明淑 「朝鮮時代 冕服의 考察」 梨大碩士論文 1982. p.23.
10. 大明會典 卷之六十九 禮部十八冠服一皇帝冕服 條 參照.
11. 金東旭 「李朝 冠帽制 始末」 亞細亞研究 7卷1 號 p.5
12. 「韓國續五禮儀補序例」 卷 六一.
13. 黃沅根 「韓國長裝身具, 美術研究」 一志社 19 76, pp.370~373.
14.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大出版部 1980, p.282.
15. 「韓國續五禮儀補序例」 卷六一.